

“법맥 복원 종단도약의 계기죠”

4요인터뷰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봉안 주역
전 운 덕 총무원장
대담 : 최정희 국장



—6월17일 국청사에서 조사당 낙성식을 봉행할때 천태종 스님들과 종도들은 한결 같이 감격과 환희에 찬 모습였습니다. 불사를 직접 추진하면서 중국을 8번이나 오고간 스님의 감회는 남다른것을 텐데요.
▲낙성법요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돼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 천태종이 이제 큰 걸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다는 자긍심을 갖게되는군요.
이 불사를 원만히 회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과 국청사 방장 기명스님 등 중국 불교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법맥복원’이란 말에 일부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태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에 맞게 다시 꽃피우기 위해 비록 타국이지만 본 고향에 조사당을 세운일은 뜻깊은 불사라고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

다. 의미가 더 컸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 조사의 비문과 벽면의 법통도표를 옮기게 할 때 무리 하려면 천태산에 또 가서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사가 끝나더라도 한중 천태종 사적답사 및 한국 천태종들의 협력정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조사당 건립과 맥을 같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지자체사 열반 1400주기여사

약력

- 63년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충북 태권도협회장
- 불교종단협 부회장
- BBS 이사(현)
- 천태종 5~10대 총무원장(현)

법화 가르침 퍼면서 불교의 생활화에 역점

특히 한중 불교의 역사를 되새김하면서 새 불교를 잇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외 불사를 시작하게된 배경과 경위가 궁금합니다.
▲1992년 4월 본종의 간부들과 동국대 김영태교수를 비롯 17명으로 구성된 ‘천태종사적조사단’이 중국 국청사와 한주·영양대에 산재한 한국 천태종스님들의 사적을 두루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일행은 북경에 가서 조박초회장을 중국불교협 간부들을 만났는데, ‘형제애의 산증거’라며 양국의 적극적 교류를 제의해 왔습니다. 당시는 양국이 수교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청사에 천태종 ‘전법기념비’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이 안은 상원조사의 유적이었습니다. 귀국후 곧 ‘승인’ 회답을 받아 불사는 급진전 됐습니다.

일본서도 국청사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리더군요.
▲3국 천태종이 유대를 갖고 미래지향적 불사를 추진하여 천태사상으로 21세기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천태사상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지자대사에 의해 그 사상이 조직 정리되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법화·천태는 화엄교학과 더불어 중국과 한국불교의 교화를 대표하는 교학사상인 동시에 선과 함께 실천수행문의 생벽을 이루는 선관사상이기도 합니다. 실상을 중히 여기는 사상으로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성문·연각·보살 등 3승은 방편일뿐,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긴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불해 천태의 교관이 대각국사에 의해 이땅에 전래돼 개창되었지만 실은 법화경 신수봉행은 이미 삼국시대에 행해졌죠. 특히 고려초에는 침체에 빠진 중국 천태종을 회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상원조사께서는 어떻게 천태종을 중창 하셨나요.
▲13세때 사서삼경을 다 배운후 15세 때 삼척 삼태산(三陟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일기도를 마친후 3년간 육지법차려 등을 배웠으나 더 큰 진리를 찾아 불문에 귀의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다니다 1942년 중국으로 건너가 곤륜산, 오

대산, 보타나가산 등을 순례하고 45년 귀국하여 명승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의 소백산 구인사 터입니다. 1951년 12월 공삼대(空三昧)를 체득, 회삼귀일을 민족통일 이념으로 삼고 법화의 가르침을 생활불교 지표로 삼아 새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세가 확장되자 1966년 종의회를 구성하고 67년 종단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4 세종6년 선교양종 통합으로 종명을 잃어 버린지 540여년만에 그 이름을 되찾은 셈이죠.
—새불교운동이라하면...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하여서 선행(禪行)을 실수하는데 주경야독하는 이채로운 행업을 홍보했습니다. 노동을 통한 실천을 중시하면서 교학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정진이죠.
—원효의 화쟁(和靜)사상이 성립된 요체도 바로 법화사상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법화·천태사상은 이나라 국가통일이념으로서 길게 뿌리를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태종에서도 그런점에 역점을 두고 불교의 생활화와 더불어 남북통일운동을 점진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그럼 우선 천태사상을 널리 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천태종과 그 역사 및 사상을 알리는 몇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만 이제 구인사에 있는 역경원과 종전(宗典) 관한

연구원(원장 김영태교수)에서 천태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각종 간행물을 펴낼 것입니다.
—교계에는 범종단적으로 해야 할 불사가 산적해 있습니다. 영상포교매체인 불교텔레비전이 2차 주식공모에서 매우 성과가 부진해 ‘발등의 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또 교육불사, 의료사업, 모두 불교계의 과제인데요.
▲속직하고 있는 일인데요. 종단내 불사가 어느정도 진척되면 동참 내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교계 불사에도 관심을

—이번 국청사의 조사기념당 낙성식에서 보니 천태종 비구·비구니스님들과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더군요. 놀랐습니다. 4백여 스님과 1백50만 신도가 바로 저렇게 움직이니가 큰 불사를 적적하나보다 싶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상원조사와 남대총종의 힘이 근간이 됩니다.
—1966년 총무원장으로 시작하여 5대부터 현재 제10대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고 계신데 혹시 중정을 꿈꾸어 보신일은 없으신지요.
▲전혀 없습니다. 불법을 바로 알면 그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국청사에 조사당을 건립한 것은 대한불교 천태종 30년의 축적된 힘이며, 새 불사를 위한 기반구축이라고 봅니다. 더 큰 불사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나의 수행일기

사재동 ▲총무원장 부인과 교수

젊은 시절 말로만 듣던 불교는 ‘관세음보살·나무아미타불’이었다. 어릴 때 밋모르고 외할머니나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가까운 절에 다니면서 그저 호기심으로 뛰놀았고, 학창시절에 소풍·여행을 떠나 대소 사찰을 구경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신앙과 정서의 바탕은 ‘불교’였던게 분명하다.
한창 생각이 많고 발달한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 고생을 하게 되었다. 막내아들로 어머니 사랑을 입고 모범학생으로 교수님의 귀여움을 받다가 살벌한 훈련소를 거쳐 낮은 전우들과도 헤어져 최전방 강원도 산골짜기에 폭 떨어졌을 때, 절망감 같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벌써 ‘어머니!’를 속으로 되뇌고 있었고, 막연한 상념인 채로 어느새 간절할 기도 같은 것이 우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라고 소리내지는 못하였다.
남이 갈수록 생활의 고통은 정말 혼자 감당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당장이라도 도망쳐 고향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

음으로 느끼는 그 자책였다.
어머니가 과로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늦게야 병원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미련한 자식’을 되뇌이면서 어인이 병방하였다. 고향집으로 모시고 말로만 위로하면서 열열결결 ‘어머니, 관세음보살을 열하셔요’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알아들은 듯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울음이 북바쳐 도망치듯이 옷방으로 올라와 소리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너무도 무거운 자식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 못하여 ‘관세음보살님, 어머니를 구해주소서’라고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어느 토요일 새벽에 어머니께서 흰옷을 입고 오셔서 우물우물 하시며 어디론지 가

생활 철학은 ‘모든게 생각 나름’

고통당할 때 ‘관세음 보살’ 부르며 어머니 그리

음이 간절해졌다. 그럴지라도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무겁게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극한상황 속에서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이었다. ‘모든 것은 생각할 나름이다. 생각을 맡아라!’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출가자의 심정으로 참고 견디자는 뜻이었다.
그로부터 엄정한 운영생활이나 고된 아역훈련에서 군모의 왼쪽 모서리에 ‘생각을 맡아라!’ 라고 써 붙이고 다녔다. 그것은 확보 병들의 공감대가 되어 그들의 모자 한 모서리에는 거의 다 그런 말이 쓰여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강행군 끝에 높다란 험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실전에 임하듯 경계근무를 하면서, 태연한 듯 경건한 마음이 되어 앞에 보이는 우람한 바위에 대고 물레절을 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하소연이기보다는 차라리 절대지에 대한 기도였다.
꿈과 같이 재래 복학하였을 때 ‘불교문학’을 수강하는데, 그 교수님이 원효대사와 관련된 ‘一切唯心造’를 간곡하게 설교하여 가슴이 후끈하는 감명을 받았다.
일찍이 군대생활에서 체험한 ‘모든 것은 생각할 나름이다’와 즉시 일체감을 이룬다고 절감하였다. 그것은 이치를 따진다거나 불법에 합치한다는 문제를 떠나 완전히 가

신하기에 ‘어머니’를 부르며 뛰뛰다가가 잠을 잤다. 온몸에 힘이 흐르고 힘이 쭉 빠져 일어나기조차 어려웠다.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예상 같은 것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였다. ‘어머니가 위독하니 속려하라’는 전보가 왔다. ‘어머니가 새벽 그 시각에 돌아가셨다’는 직감이 들었고, 알고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막내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이시려고 꿈속에 나타나신 어머니는 ‘관세음보살’로 승화하셨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어머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 이로부터 나의 신앙은 안으로 못박혔던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어머니처럼 부르는 그 이름이다. 크고 작은 일을 당했을 때, 괴롭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몸이 아파 기침을 하거나 주사를 맞을 때까지도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그러면 정말 모든 일이 다 마음 먹은 대로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어머니가 도우면 안되는 것이 없었을 때와 같이 지금은 관세음보살이 도우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믿음이 행동화되었다. 그렇다면 내 몸·마음과 하나가 된 관세음보살이신가. 그 확답은 누가 할 것인가.



한중 불교교류의 새 장

—전법기념비가 조사기념당으로 바뀐데도 사연이 있을것 같은데요.
▲국청사 경내 관음전 옆에 일본측 천태종 비각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경외에 자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오고간 끝에 경내에 부지가 확정됐는데 터를 닦는 과정에서 현재의 관음전 위치가 앉게되면서 조사당을 건립하고 천태지자, 대각국사 상원조사상을 봉안하게 돼, 불사의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지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중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번